

박효주 “매순간 감사함 깨달았죠”

“미숙이를 통해 제 주변을 많이 돌아 보게 되고, 순간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SBS TV 금토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의 이별을 준비하는 전미숙 역을 맡은 배우 박효주(40)를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남편과 아이에게 충실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다 취직안 말기 판정과 함께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생겨나는 넓은 감정 폭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면서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박효주는 “그동안 안 해왔던 감정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되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촬영할 때가 많았다”면서 “그래서인지 그 상이 너무 달콤했다.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크고 확실하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20여 년의 배우 생활 중 처음으로 시한부 연기에 도전했다는 그는 “그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든 일상과 작품이 어느 정도 구분됐는데 이번에는 미숙이가 제 일상에도 많이 침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극 중 가족을 위해 늘 본인을 희생해 오던 미숙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가, 이윽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불륜녀를 이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배우 박효주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제공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시한부 전미숙 역 “아름답게 이별...잘 살았다고 말해주고파”

박효주는 “저 또한 눈물을 좀처럼 주체할 수 없는 장면이 너무 많았다”며 “특히 같이 호흡하는 배우를 만났을 때는 그 감정이 더 증폭되고 생각지도 못

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면서 극 중 ‘질전’으로 출연한 배우 송혜교와 최희서에게 감사를 표했다. “상대 배우에게 굉장히 의지하면서

촬영하다 보니 영은이(송혜교분)와 지숙이(최희서)에게는 더 많이 감사했죠. 특히 두 사람과는 여자 배우로서의 동료애가 있어서 처음부터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사랑하는 사람 간의 헤어짐뿐 아니라 미숙을 중심으로 삶에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를 더해 ‘이별’이라는 소재를 폭넓게 다뤘다는 평을 받는다.

박효주는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 연주곡처럼 다양한 멜로디가 있다”면서 “미숙이는 이별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부분을 담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미숙이는 삶을 가장 자기답게 잘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한 사람이죠. 만약 미숙이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너 충분히 잘 살았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한층 성장했다고 느낀다는 그는 작품에 대한 애정도 아낌없이 드러냈다.

“작품 제목도 우리 인생이 매일 이별하는 것이라는 걸 굉장히 시작이고 함축적으로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한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생명해 지는 것들을 알려주고 시간이 흘러도 더 생각나는, 여운 깊은 드라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영화계 인력 이동... ‘OTT 러시’ 확산

극장 침체 지속도 원인

극장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배우들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오리지널 작품에 참여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통 영화배우’로 인식되던 연기자들까지 OTT 급부상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민식은 디즈니+가 제작하는 드라마 ‘키지노’ (가제)에 출연한다.

카지노를 통해 성공하게 되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린 범죄 액션물로 최민식이 OTT 오리지널 작품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경구 역시 영화 ‘길복순’을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첫 출연을 확정 지었다.

전설적인 여자 길러가 회사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는 이야기

를 그린 액션 영화다.

스크린을 고집하던 배우들의 ‘OTT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영화계 인력이 OTT 시장으로 옮겨간 뒤, OTT 콘텐츠와 영화 간 경계가 허물지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촬영 방식이나 콘텐츠 성격이 영화와 비슷해지면서 배우들이 더욱 쉽게 OTT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글로벌 OTT에 진출할 경우 시청자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출연진은 단숨에 해외 주요 시상식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코로나19로 영화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OTT는 확 뜬 상황”이라며 “배우들이 OTT를 가장 유력한 돌파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나윤선 “팬데믹 속 희망 메시지 전달”

11집 ‘웨이킹 월드’

직접 만들어 1집 느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제 앨범을 통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정규 11집 ‘웨이킹 월드’(Waking World) 발표를 앞둔 가수 나윤선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악몽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몽’이라는 표현처럼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고통스러운 고품과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

그는 “이번 음반은 11집이 아니라 앞의 ‘1’을 빼고 1집 같은 느낌”이라며 “이번 음반을 내면서 10개는 더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나윤선은 특히 전곡을 작사·작곡한 것에 그치지 않고 편곡과 프로듀싱을 해낸 데 이어 음반 재킷 사진까지 직접 촬영했다.

그는 “이번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정면을 촬영하고 싶었다”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인간들)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되돌아보고 각자가 책임감도 느끼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는 송가인과 함께

KBS 2TV ‘조선팝어게인’

KBS는 다가오는 설 연휴 가수 송가인의 무대를 담은 ‘조선팝어게인 송가인’을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

방송에서는 송가인이 창곡, 판소리 등 국악뿐 아니라 ‘리사일쇼’를 통한 트로트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어머니 송순단 명장과 진도씻김굿을 부르는 모습을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며 스



가수 나윤선 /엔플러그 제공

타이틀곡 ‘웨이킹 월드’는 마치 새벽녘에 홀로 명상에 잠긴 듯한 청명만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꿈에서 깨어나 마주해야 할 팬데믹은 암울하다 보니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누리자는 메시지다.

그는 오는 27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위스 등을 거쳐 우리나라를 찾는 월드 투어 여정에 오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하면서도 기대된다고 했다.

“팬데믹 시대에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요. 그래도 코로나19 기간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공연을 통해 팬분들을 다시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네요.” /연합뉴스

BTS, 그라미 트로피도 들어 올릴까?

수상 시 미국 3대 음악상 ‘그랜드 슬램’ 시상식 연기...작년에는 3월 중순 진행

지난해 여름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던 ‘버터’(Butter)가 높고 단단한 벽 ‘그라미’도 녹여버릴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그라미 시상식이 연기된 가운데,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관심이 크다.

9일 가요계에 따르면 그라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 5일(현지시간) 그라미 수상자 결정을 위한 최종 라운드 투표를 종료했다.

투표는 지난해 부문별 후보자가 발표된 이후인 12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이뤄졌다.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은 최대 10개 카테고리를 선택해 후보자를 확인하고 투표권을 행사했다.

BTS는 지난해 3월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오르기도 수상

문턱은 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부문 후보에 올랐던 ‘다이내마이트’(Dynamite)와 비교하면 ‘버터’가 거둔 성적은 더욱 두드러진다.

‘버터’는 빌보드의 ‘핫 100’에서 통산 10주간 정상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빌보드 역사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비롯해 40곡뿐이다.

그라미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의 영광을 안은 점 또한 BTS엔 유리한 요소다.

만약 올해 그라미 수상에 성공하면 K팝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을 모두 석권하는 새 기록을 쓰게 된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BTS는 그라미 수상을 목표로 모든 활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라미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평가가 많았던 만큼 처음 BTS가 후보에 올랐을 때도 ‘1년 정도 묵혔다 상을 줄



BTS /빅히트 뮤직 제공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라미 시상식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이달 31일, 한국 시각으로는 설날 당일인 2월 1일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킵 아레나(옛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그라미 시상식은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1월 31일에서 3월 14일로 한 달 보름 정도 연기된 바 있다.

예초 BTS는 이달 하순께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계획이었지만, 시상식이 연기되면서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멤버들은 장기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0일 (음력 12월 8일)

 <p>48년생 장고 끝에 악수 든다. 60년생 돌이킬 수 없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72년생 기쁨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84년생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p>	 <p>49년생 기대보다 결과가 좋겠다. 61년생 일단 시작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73년생 음식이 양자된다. 85년생 내 주장을 펼치고 관철시킨다.</p>	 <p>50년생 나갔던 목돈이 들어온다. 62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 74년생 답답함과 그리움이 자주 쌓여간다. 86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가 있다.</p>	 <p>51년생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 63년생 지난 어려움은 잊고 새 출발하라. 75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리는 날이다. 87년생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하다.</p>
 <p>52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64년생 동분서주 바쁜 날이다. 76년생 재운이 나쁘니 금전적인 문제가 있겠다. 88년생 이제 새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p>	 <p>41년생 자신감이 지나치면 망신만 당한다. 53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65년생 용이여 의주를 얻는 날이다. 77년생 이성과의 갈등은 절대 피하라.</p>	 <p>42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 54년생 첫인상에 속지 말라. 6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78년생 수리를 따르면 백사대 갈라라.</p>	 <p>43년생 처음과 끝이 없으니 난감하기만 하다. 55년생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지 말라. 67년생 절대 물러서지 말라. 79년생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친다.</p>
 <p>44년생 절도습관 보고 판단하지 말라. 56년생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68년생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80년생 작은 질병도 소홀히 말라.</p>	 <p>45년생 추추고 노래할 일이 있겠다. 57년생 꿈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69년생 교통사고가 우려되니 일찍 귀가하라. 81년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p>	 <p>46년생 눈앞의 작은 이익에 얽매지 말라. 58년생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70년생 과음하면 망신수가 있겠다. 82년생 사랑한다면 한 번 더 용서하라.</p>	 <p>47년생 크게 화가 나도 참는 것이 이롭다. 59년생 다소 구설이 있지만 결과는 좋겠다. 71년생 절대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83년생 일찍 귀가하라.</p>